

폐교 개조한 여수 농업체험학습장 활용 고심

용도 폐기 후 수년 방치...주민 토론 거쳐 이목초 중심 관광사업 추진
마을기업 협동조합 구성...문광부 공모사업 응모 등 활용 방안 모색

여수시가 폐교를 개조해 만든 농업체험 학습장이 용도 폐기된 이후 수년째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2005년 11월 폐교된 화양면 이목초등학교를 3억3000만 원에 매입했다.

여수시는 농업체험학습장으로 쓰기 위해 2006년부터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2008년까지 적합한 사업자를 뽑지 못했다.

여수시는 직접 농업체험학습장으로 쓰기 위해 4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나섰으며 2010년 10월 문을 열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숙박시설로 활용했지만, 행사 이후 이용객 수가 줄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3월 여수시는 용도폐기 결정을 하고 매각하기로 했으나 시의회는 매각보다는 활용방안을 찾으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활용 방안을 찾으려 했지만, 체험장에 입주한 도예체험공간이 예정된 임대 기간을 넘기고도 나가지 않아 문제가 됐다.

여수시는 도예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작년 말에 농업체험학습장 문제가 일단락됐다.



여수 화양면 옛 이목초등학교 전경.

최근에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대표 등이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2월 주민대표 등과 토론

업에 응모해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최근 7300만원을 들여 조립식 건물 7개 동을 철거했다.

지난달에는 이목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전남도에 설립 신고를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 응모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김종길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농업체험학습장을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폐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마을기업을 구성하는 등 운영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공원도 활용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국회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권오봉 시장, 칼 마이던스 사진도록 출판기념회서 호소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 사진도록 출판기념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권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순사건은 해방 정국의 시대적 정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라며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반란의 땅으로 인식되며 지역민은 오랜 시간 침묵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1999년 특별법이 제정된 지

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4·3사건을 언급하며 "여순사건은 20대 국회에서 5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순사건 당시 유복자로 태어난 분들이 벌써 70세를 넘었고,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한분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여수시는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 추념식을 가졌고,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

내외에 알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순사건 당시 종군기자였던 칼 마이던스가 여순사건 사진자료를 남겨놓은 것은 천만다행이다"면서 "이번 사진도록이 정치권과 학계, 국민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칼 마이던스는 '라이프'지 종군기자로 1948년 여순사건을 현장 취재해 사진 329 점을 남겼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마이던스의 사진 중 98점을 선정한 도록으로 만들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도록을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948, 칼 마이던스(Carl Midans)가 본 여순사건' 사진도록 출판기념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여수시 제공>

남면 화태마을 LPG 집단공급 시작...연료비 최대 48% 절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3%를 차지하는 여수시 남면 화태마을이 올 겨울부터 연료비 걱정을 덜게 됐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남면 화태마을 LPG배관망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부터 LPG 집단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난방·조리 등에 LPG(가스)와 등유를 사용하던 주민 101세대가 최대 48%까지 연료비를 절감하게 됐다.

LPG배관망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가스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3월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포함 총 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주민 설명회와 여수시-한국LPG 배관망사업단 업무협약 등을 거쳐 사업 토대를 마련했다.

9월에는 집단공급사업자에 목포도시가스와 여수남해가스를 선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했다.

이번에 설치된 LPG 저장탱크(사진)의

용량은 4.9t이고, 요금은 ㎥당 2006원이다.

매월 사업자가 검침 고지서를 부과하는 등 도시가스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다.

이성남 화태마을 이장은 "추운 겨울 가스통을 교체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기름값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

여수시 관계자는 "마을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면서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도전해 보다 많은 농어촌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GS칼텍스, 김장 나눔 대잔치...4100포기 소외 이웃에 전달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 여수공장이 연말을 맞아 지역 소외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하며 온정을 나눴다.

GS칼텍스는 지난 5일 여수시 GS칼텍스 쌍봉사택에서 '2019년 GS칼텍스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고 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4100포기를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과 홀몸어르신 가정 등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이용주 국회의원, 최무경 전라남도의원, 김형국 GS칼텍스 사장을 비롯해 여수시 관계자, GS칼텍스 임직원, 여수지역 자원봉사자 등 총 170여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GS칼텍스는 2005년부터 15년째 연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분사, 여수공장, 각 지방사업장에서 김장 나눔, 난방용품·생필품 지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등 소외 이웃을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GS칼텍스 김장 나눔 대축제'에 참가한 최무경 전라남도의원(왼쪽 첫번째), 이용주 국회의원(왼쪽 두번째), 김형국 GS칼텍스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김장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공무원노조
현 청사에 별관 신축
통합 청사 마련 찬성
설문조사서 89.5%가 선호

여수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의 여수시청에 별관을 신축하는 형태의 통합청사 마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여수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통합청사 대안으로 별관 신축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응답 대상자 218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7명(57%)이 답지를 제출하면서 개인별 견해를 밝혔다.

설문 결과 별관 신축은 찬성 1116명(89.5%), 반대 81명(6.5%), 모르겠다 50명(4%)으로 나타나 90% 가까이 별관 신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답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반대 응답자 81명 중 45명(55.5%)이 '별관신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통합청사 신축'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건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 간 갈등 해소'(39.9%),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30.4%), '의회의 예산 승인'(28.8%), 기타(0.8%) 순으로 답했다.

여수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설문조사 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는 시민불편 증가(78.4%)를 우선으로 선택했다.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 별관신축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1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예약문의 062-226-0011